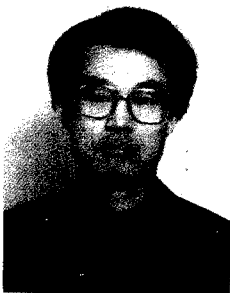




백제문화의 고정된 틀을 벗어나자



정 동 찬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사연구실장

충남의 문화특성을 모든 분야에 걸쳐 조감해 보는 일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며, 글쓴이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어서 여기에서는 글쓴이가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고·민속분야로 한정하여 충남의 문화를 보는 시각에 대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충남하면 백제, 백제하면 공주, 부여를 생각하게 되며 아직까지 백제라는 시대적 틀 속에서 튀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충남문화에 대한 인식의 틀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요즘은 서해안 개발과 함께 백제문화권 개발이라는 말까지 생겨나서 충남문화의 개발은 곧 백제문화의 개발과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충남문화를 백제로만 한정시킬 경우 충남문화의 많은 부분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기존의 시각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 즉 백제문화권이라는 인식의 틀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진정한 충남문화의 폭과 깊이를 넓히고 다져서 충남문화의 영역

과 발전 그리고 기대의 폭을 넓혀 가야 한다.

충남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백제가 중심이 된 중양과 왕실, 문헌과 사건중심에 관광문화까지 공주, 부여에 거의 한정되다 보니, 충남주민이 일고 고 가꾸어 온 진정한 생활문화와 그 가치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소홀히 해 온 감이 없지 않다. 그런 까닭에 급격한 개발에 따른 도로망의 개설과 외부문화의 빠른 유입과 함께 지금까지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정리하여 밝히고 지켜 나아가지 않으면 충남문화의 본질인 기층문화는 얼마 안되어 사라져 버릴 위기에 있다. 이러한 기층문화를 지켜 가는 데는 각 지역의 대학·박물관·문화원과 향토사학자를 중심으로 자연마을의 역사와 생활모습, 풍습 등을 더 늦기 전에 하루 빨리 조사하여 남겨 놓아야 할 것이다. 충남의 각 지역 문화가 총체적으로 조사되고 응집될 때, 충남의 문화는 백제라는 시대적 한계를 벗어나게 될 것이며, 올바른 정체성(identity)을 확립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 겨레의 역사를 올

바로 정립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들을 해 나가는 데는 밖으로부터 지원이나 자극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충남인의 자각이 필요하다. 내가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아낄 줄 모른다면 어느 누가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일구어 줄 것인가? 충남의 자연과 문화유산은 우리 스스로 일구고 가꾸 가야 하겠다. 이제 정치적인 자치를 이룩했다면 이에 걸 맞는 문화자치를 실현해야 할 때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들이 보다 먼저 생각하여야 할 것은 개발과 보존의 문제이다. 개발과 보존은 늘 대립되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70년대부터 경제성장을 위한 국토의 균형 개발이라는 큰 목표 아래 우선 시급한 곳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개발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우리 자연과 문화유산의 시련은 남달랐다고 볼 수 있으며, 우리의 충남지방도 예외는 아니었다. 충남지방은 80년대 전반기까지 학계의 관심에서 멀리 있었으며, 이때까지 우

리 충남지역의 유적과 유물은 많은 부분이 방치되거나 훼손되었는데, 특히 걸으로 드러나 있는 선사·역사시대의 유적과 유물의 훼손 정도는 심한 편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80년대 중반 기부터 백제권 개발이라는 국가적인 관심아래 이 지역의 문화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사업은 어느 특정 시대에 국한하여 계획하고 개발하는 문제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80년대 초반기에 설정된 5대문화권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면서 부터이다.

이 5대문화권이라는 것은 ① 백제고도문화권 ② 경주신라문화권 ③ 중원문화권 ④ 가야문화권 ⑤ 제주문화권으로 3개는 시대적인 면을, 2개는 지역적인 특성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5대문화권의 설정은 어제와 오늘 그리고 할제(내일)를 모두 반영할 수는 없었으며, 우리 역사에서 가장 두드러져 보이는 제한된 영역에 그 시각이 머물러 있어 지역의 총체적인 문화에 대한 인식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여기에서는 우리 지역을 백제고도문화권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과 공주·부여라는 백제의 옛 도읍지를 중심으로 설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닻에 우리 충남지역은 주로 백제문화를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음이 현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 충남지역에 백제가 도읍을 정하여 나라를 유지한 것은 겨우 122년(538년-660년)간으로 충남지역의 전체역사에 비해 아주 작은 시간대에 불과하다. 요즘 충청남도라는 이름이 쓰인 지 100주년이 된다고 하여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충남지역의 역사는 공주 석장리의 발굴조사결과 적어도 30만년전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 이 30만년을 하루 24시간으로 할 때, 백제가 이 지역에 도읍을 정한 시간대는 35초 정도이다. 물론 백제문화가 역사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그 존속기간에 못지않게 중요하지만, 충남지역의 긴 역사에서 보는 백제의 존속기간은 그렇게 길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시각으로 우리지역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가장 특색



있는 충남의 문화요소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자.

우리 충남지역에 처음 사람들이 살았던 자취는 공주석장리 구석기 유적에서 찾을 수 있는데, 약 30만년 전부터이다. 공주군 장기면 장암리 석장마을의 금강북안에 위치한 이 유적은 1964년-1992년까지 12차례 발굴조사되었다. 이 곳에서는 전기 구석기시대부터 후기 구석기 시대까지의 유물이 층위를 이루고 출토되고 있어 우리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표준유적(type site)으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 이 유적에 구석기유물만을 전시하는 기념관을 세울 계획이 서 있어, 기대되는 바가 자못 크다고 하겠다.

그 뒤에 나타나는 신석기시대의 유적으로는 안면도 고남리를 비롯하여 금강유역에서 간혹 발견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발굴된 유적은 아주 적은 편인데, 그 까닭은 서해안의 해수면(sea level) 변동에 따라 이 시대의 유적이 바닷속에 잠겨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우리 충남지역의 선사시대를 대표하는 것은 청동기시대

와 관련된 유적과 유물인데, 우리 나라에서 충남지역만큼 풍부한 유적과 유물이 찾아진 곳이 드물어, 우리 나라 청동기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 충남지역에서 살펴볼 수 있는 청동기시대의 유적으로는 집터와 무덤 그리고 큰돌(고인돌과 선돌)문화를 들 수 있다.

먼저 청동기시대의 집터유적으로는 부여 송국리/보령 교성리/천안 두정동/서산 휴암리.대로리/안면도 고남리 /천안 백석동 등을 들 수 있는데, 보성 교성리/천안 백석동/서산 대로리의 집터는 유적의 입지조건이 산 정상과 같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우리 나라의 청동기시대 집터에서는 흔하지 않는 특이한 짜임새를 하고 있어 학계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각각의 집터가 가지고 있는 건축공학적 기술상의 특징은 우리 나라 움집터의 풀이에 큰 기준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 그밖에도 부여 송국리 유적은 사적 제249호로 불에 탄 쌀 등 많은 여러 가지의 유물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 특히 민무늬토기는 바라진 아가리에 배가

약간 부른 긴 몸통과 축약되고 좁은 편평밑을 가진 모습인데, 이 토기는 이곳에서 많이 나오는 독특한 형식으로 「송국리형 토기」라 이름하고 있기도 하여 이 유적 또한 우리 나라 청동기시대를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유적이다.

아울러 서산 휴암리유적은 집터가 긴 네모꼴로 가운데에 양쪽으로 기둥구멍이 있고 그 양 끝에는 보조기능을 하는 작은 기둥구멍이 있는 것과, 집터의 가운데 있는 기둥구멍을 중심으로 4개의 작은 기둥구멍이 둘러싸고 있는 것 두 가지 유형이 발굴조사되었는데, 이렇게 한 지역에서 서로 다른 구조를 갖춘 집터가 함께 찾아진 예가 우리 나라에서는 해미지역에서 처음 있는 일이어서 [해미형집터]란 말을 쓰기도 한다. 특히 이 집터는 우리 나라 청동기시대 집터가운데 가장 이른 형식인데, 이것이 동쪽으로는 충북 청원 내수리, 남쪽으로는 부여 송국리와 전남지역의 광주 송암동·송주 대곡리·일본 구주지방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학계

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다음에 살펴 볼 수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돌 널무덤유적으로 예산 동서리/아산 남성리/부여 송국리/부여 가증리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유적에서는 토기는 검은 간토기/덧띠토기가, 청동제품은 한국식동검/비파형 동검/대쪽모 양동기/방패형 동기/종방울/거친무늬거울 등이, 치레걸이는 대롱구슬/굽은구슬이 나왔는데, 특히 대쪽모양동기는 아산 남성리/예산 동서리유적에서 한꺼번에 3점씩 찾아져 주목되고 있으며, 동서리의 나팔모양동기는 만주의 정가와자 유적에서 출토되어 이 지역과의 문화교류 가능성에 시사하여 주고 있고 남성리의 청동부채꼴 도끼와 검은 간토기는 중국 요녕지역에서 많이 출토되고 있어서, 이 지역과의 문화교류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부여 송국리에서 출토된 초기형태의 비파형 동검은 중국 동북지역에서 찾아지고 있는 동검과 비슷하여, 우리 나라의 청동기문화가 기원전 10세기 이전

에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밝히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우리 충남지역은 우리 나라 청동기문화의 보고임은 말할 것도 없고 동북아시아의 중심지라 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이다.

그밖에도 논산 신기리/서산 인지면/보령 골말·평라리·진죽리·관창리/서천군 일대 등 여러 지역에서 최근 집터와 돌널무덤·고인돌이 많이 찾아지고 있는데, 평라리 돌널무덤은 3중구조를 한 돌 널로 국내에서 최초로 발견되어 학계의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울러 금강 가에서 찾아지고 있는 선돌은 성(性)의 구별은 물론이고 오늘날까지 솃대·장승·돌탑(성황당)과 함께 마을신앙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어 이 지역의 큰돌문화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함께 우리 충남의 기층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각 지역의 민속문화도 의·식·주·공예·놀이·종교·특산물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연환경에 맞게 자리잡아 왔음도 이제 찾아 밝혀야 한다. 충남의 전지역에서

산제, 장승제, 거리제, 동화제 등의 동제를 전통사회의 제의에 가까운 형태로 유지하고 있는데, 금산의 (돌)탑제, 은산의 별신제, 홍성의 홍가신사당, 외연도의 전황장군제, 청양의 장승제·동화제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우리지역만의 특색을 지니고 있는 중고제·얇은굿·농요·우도풍물·여러 가지 설화와 민담·전설·고유언어·생활의학·한산모시·홍성옹기는 물론이고 서산·태안·아산을 중심으로 한 서해안 지역의 개발에 따라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는 어로도구 및 문화의 보존책도 서둘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고고민속 등의 문화들이 총체적으로 조사 연구될 때 우리 충남문화는 제자리를 올바르게 찾게 될 것이다.

이밖에도 시대를 내려오면서 각 시대를 특징짓는 그릇을 구워 내던 가마터, 기와가마터, 성곽과 절터, 유림의 본거지, 초기 서학의 도입과 동학의 발흥, 일제 강점기의 구국항쟁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 겨레와 나라사랑의 뜨거운 정열과 사명을 충남인들은 실천해 왔던 것이다.

특히 우리 충남지역에서는 다른 지역보다도 빠른 속도로 초기의 불교나 천주교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 지역이 바다를 접하고 있어 외부와의 문화교류가 이 바다를 통해 계속되었음을 반영하는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선사시대부터 오늘에 이르는 대륙과의 빈번한 교류의 증거들로 볼 때 우리 충남인들이 대륙과의 문화교류 중심지에 이룩한 우리 충남문화는 유연성이 뛰어나 어느 문화든지 철저히 소화하여 우리 것으로 만들고 우리 고유의 것과 함께 다시 대륙에 되돌려 주기도 하고 직접 섬나라에 전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 것이 뚜렷한 특성 가운데 하나임을 말해 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 충남지역은 독특한 내륙과 해양의 복합문화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금강과 서해바다와 접하고 있는 자연환경에 힘입어 일찍부터 이 곳에서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마련하여 선사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독특하고도 뚜렷한 문화를 일구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한 시대나 한 지역만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우리 충남지역에서 찾아지는 모든 자연과 문화유산에 관심과 사랑의 눈길을 보내야 할 것이다. 즉 나타나 있는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여 충남문화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하겠다.

이제 위에서 살펴 본 우리 충남지역만이 갖는 독특한 문화성격은 서해안 개발에 따른 급속한 산업화와 반비례하여 자연과 문화유산을 비롯하여 기층사회의 훼손과 파괴의 정도가 날로 심하여 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어서, 그 보존대책과 학술조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철저한 계획의 수립은 우리 충남문화를 지키고 가꾸고 일구어 가는데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